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130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20,19-31)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눕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5분 신앙상식’을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20.19-31

묵상 중에 말씀을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며 토마스 사도의 마음에 머물렀다.

말할 수 없이 괴로웠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뒤 깊은 상실감과 쓰라린 자괴감만 더했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능력을 보이셨는데 정말 그렇게 끝나신 것일까?’ 하는 의문만 남았다. 그분께 대한 미련이 방향을 부추겼다. 하여 그분의 음성이 울리던 갈릴래아와 그분의 자취가 남아있는 성전과 골고타 언저리를 배회하다 어둠이 깔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다. 문을 두드리자 동료가 열어 주면서 자기네끼리 말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다.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건 무엇인가? 그 분이 너무 보고 싶다. 가뜩이나 괴로운 마음을 둘 곳이 없는데 두려움이 섞인 동료들의 그런 말을 듣자 사실여부를 떠나 착잡함과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이 불길처럼 솟구쳤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20,25) 하고 되받아쳤다. 내 정신인지 모르겠다. 마음만 더 슬퍼졌다. 며칠 뒤에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형제들에게 돌아왔다. 그런데 공간에 환한 기운이 돌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닌가? 예전의 그 모습 그 음성으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20,26) 하시며 날 바라보셨다. 나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게 정지하는 것만 같았다.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20,27) 발치에 꿰어 떨리는 손으로 상처나 그분의 발을 감싸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처절한 방향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20,28) 하고 울며 불렀다. 감동으로 흐르는 눈물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로운 영혼의 호수를 이루었다. 모두가 기쁨의 눈물 속에 있었고 서럽고 아팠던 마음이 씻은 듯이 나왔다. 십자가를 넘어선 기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역전을 바라고 일부 신자들도 자신이 기도하고 봉헌한 만큼의 축복을 바란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20,29) 하셨다. 유한하고 물리적인 세상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을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면 행복하다. 내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을 때, 토마스의 손을 당신의 옆구리에 가져가셨듯이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의 일상도 치유해 주실 것이다.

토마스 사도의 감격이 진실하고 인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영롱하게 다가온다.

(수원교구 4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열왕기의 간략한 소개"

5분 신앙상식

열왕기 상.하권

저자

예레미야 예언자가 저술했다는 탈무드 전승이 있으나, 학자들은 신명기계 전승자들이 전해 내려온 사료를 수집해 편찬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시아 임금 시대에 저술되었고 유배 중에 최종 편집되었습니다.

시대 배경

솔로몬 임금의 즉위 때부터 유다 멸망까지의 실록을 기본 자료로 하여 내려온 전승(기원전 965-560년경).

편집목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 중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파멸이란 예언자들이 선포한 심판의 성취라고 이해합니다. 결국 이 세대와 하느님의 종교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신앙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요 내용

솔로몬 임금을 둘러싼 궁정 설화부터 시작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역사를 기술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다 왕국의 여호야킨 임금 이야기까지 실려 있습니다.

공지사항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자 모든 신앙인들에게 삶의 기쁨이며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4월12일)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맞읍시다.

-각 구역별로 부활반 새 영세자(4월 11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읍시다.

다음 달 성경말씀

요한 15,9-17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15,13-14)

* 당신은 교회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응하여 어떤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 하느님 아버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 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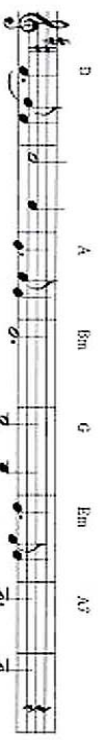
가도하며...
저서 원 정 수
적목 현 정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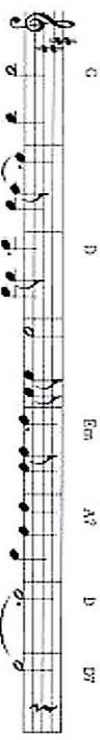
하느님 백 성 자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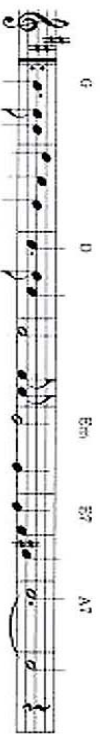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일렬 무 아 -



중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 두에 게 -



마 음 모 - 아 기 도하 고 함께 나 가져 천국 으 로 -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 체 -